

## 1. 6. 20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 한농연은 6월 20일(수) 13시, 서울에서 12만명의 농민 시민이 결집하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2일, 400만 농축수산인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후 6월말에는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미 FTA로 농산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지렛대 효과’로 경영파탄은 농가부채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 농업경영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 및 국민경제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 FTA 협상이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12만 한농연과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더욱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 2.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재개...산지 소값 폭락 심화

○ 한-미 FTA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산지 소값 폭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우 농가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묻지마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 자칫 한우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농협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한우 암송아지 산지 가격은 2일 현재 전국 평균 210만1천원으로 1월 287만8천원에 비해 27%나 내렸다. 3월까지만 해도 272만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암송아지 값은, 4월2일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여 한달 사이 20%나 떨어졌다. 600kg짜리 큰 암소도 4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2일 현재 1월에 견져 13% 떨어진 476만7천원을 기록했다.

○ 한우 농가들은 번식용 소와 비거세우까지 투매하는 등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쇠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분기에 이미 호주산 쇠고기 수입(4만6024t)이 지난해 1분기에 견줘 29%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할 방침이며, 5월 10일 시작된 한-미간 위생검역협의를 통해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여부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이뤄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양돈·양계 등 전체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한-EU(유럽연합) FTA,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식품에 타격 우려

○ 한국과 EU(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5월 7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공산품의 관세를 10년간 완전 철폐하는 등 한-미 FTA 수준을 뛰어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칠레 및 한-미 FTA와는 달리, 정부는 한-EU FTA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5월초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자세한 내용은 한농연 홈페이지를 참조), EU는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스키·포도주·돼지고기·닭고기·유가공제품 등에서 EU 국가들은 월등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맥주보리·복숭아통조림·토마토 등도 위협적이다.

○ 이 때문에,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멕시코-EU FTA와 같이 상당수의 농산물을 예외 품목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산품의 관세 철폐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농업 부문에서 양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EU와의 농산물(가공식품) 교역에서 전체 농축산물 무역적자의 15%에 해당하는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한농연과 농민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절실

○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과 연대하여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는 국회 재경위 소속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 특히 한농연은 농협중앙회와 여러 농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단시간 내에 72만명의 국민들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국회는 4월 30일(월)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앞으로 한농연은 농업 생산비 반값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화훼 및 축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용 전기요금 절감 정책 등 각종 입법 청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